

줄줄새는 광주지하철역사 부실 의혹

금남로4가역 이어 문화전당역 누수...누전 등 대형사고 우려

광주도시철도 1호선 내 문화전당역 지하 4층 역사 천장에서 최근 잇따라 누수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말 완공된 도시철도 1호선은 이듬해 개통하자마자 역내에서 잇따라 물이 샜으며, 최근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역내 곳곳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누수로 인한 2차, 3차 사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관련기사 6면〉

문화전당역 지하 4층 역사 안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동구청과 구시청 4거리 방향의 1, 2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 앞 3m 높이 천장에서였다. 역사 직원들이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서둘러 10~15ℓ 용량의 양동이 6개로 물을 받아냈으나 물은 1시간 이상 흘러내렸다.

문화전당역 승강장에서 만난 박모(54·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지하 4층에서 이게 무슨 일이나”며 “지하철 운행 초창기 때 불거진 부실공사 때문인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누수로 인한 누전, 감전 등의 대형사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승객 이모(여·27·광주시 동구 학동)씨도 “몇 달 전에도 무슨 일인지 역사 천장을



13일 오전 광주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 지하 4층 역사 천장에서 1시간 이상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관리인들이 바닥에 쏟아진 물을 양동이에 쓸어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뜯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더 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대대적인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역사 천장 안의 설비에 고인 물을 빼내는 배수관이 휘어 천장으로 물이 새지만, 현재 배수관을 제자리로 옮겨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누수는 지하철 역사 구조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안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 초에도 금남로4가역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긴급 보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 법정관리중인 문화전당역~금남로4가역 구간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

청, 다음주부터 사고원인조사 및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시철도 1호선은 모두 1조 60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구간인 동구 용산동~서구 마북동(11.96km)은 지난 2004년 4월28일, 2구간인 서구 마북동~광산구 광동(8.14km)은 지난 2008년 4월1일 각각 개통했다.

/윤현석·양수현 기자 chadal@

과학비즈니스벨트 갈라선 호남

전북 독자 유치 천명...대구·경북, 충청권 공조와 대조

국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앞에서 호남권이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갈라지게 됐다.

광주시는 전남·전북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겠다고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13일 전북도가 ‘독자 유치’를 천명하면서 그 명칭도 무색해졌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등 대전권과 충청권이 각각 ‘공조’를 바탕으로 유치를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분열된 호남권의 유치 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할 경우 광주는 중심으로 전북 정읍(방사선 관련 시설)과 화순(나노·바이오 관련 시설), 고흥(우주공학 관련 시설)을 분산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말 강운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김영진 국회의원·김진희의 서울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호남권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북도는 위원회 구성에는 참

여하지 못했지만 광주·전남과 보조를 함께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13일 새만금지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라며 독자 유치를 천명하고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애초에는 광주·전남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독자적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새만금지구가 국유지인 만큼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지구 내 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단지·경제구역 첨단산업 연계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남광역경제권 내에 속해 있는 광주·전남과 전북이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더해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 들어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데다 대구·경북, 경기도 과천까지 경쟁에 참여하면서 광

주·전남 유치에 노란불이 켜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최근 정부부처와 민주당 등 주요 정당 등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영남권과 충청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과학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 인프라의 분산 배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직접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방문에 유치를 건의하고 조만간 정부에 유치제안서를 정식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중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앞으로 7년간 3조5000여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al@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美 문화리더 연쇄 화상 인터뷰 ▶12편



드와이어 대표

제2편 오렌지카운티 예술센터 드와이어 대표

링크예술센터 편 계속 이어집니다



박진현 선임기자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

서민물가 안정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또한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는 등 물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5·8면>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25%포인트 이후 2개월 만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도 3% 미만으로 억제하며 유치원비는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연합뉴스

‘AI 전쟁’ 하루 70만마리 살처분

어제 영암 등 사상 최대규모 ...700여명 긴급 투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기세가 대단하다. 영암·나주에 이어 화순·장흥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오고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양계농가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영암에서만 13일 하루 동안 50만마리의 오리과 닭을 땅 속에 파묻기 위해 민간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757

명이 긴급 투입됐다. 이같은 매몰 규모와 동원 인력은 전남에서 AI가 첫 발생한 3일 이후 최대다.

전남도는 이날 AI 양성반응을 보였던 화순 청풍면과 나주 산포·문평면, 장흥 장평·영암 군서면 등 6곳의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은 화순

청풍 오리농가 1곳과 장흥 장평 오리농가 1곳, 나주 산포 오리농가 2곳, 나주 문평 닭농가 1곳, 영암 군서 오리농가 1곳 등이다.

또 여수시 만흥동의 토종닭 사육농가에서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긴 쉬운 ‘H5’형 AI가 확인됐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70만 마리를 땅 속에 파묻었다. 전체 살처분 대상 규모도 10일만에 300만 마리를 넘어서 325만9000마리에 이

르고 있다.

의심 신고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나주 오리농가 3곳과 해남 오리농가 1곳, 여수와 무안지역 닭 농가 2곳 등 6곳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영암·나주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고병원성 AI가 화순을 비롯해 장흥으로 옮겨가고 여수·해남·무안 등에서도 ‘H5’형 AI가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퍼지는데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AI관련 신고는 모두 33건(30건 오리·3건 닭)으로 늘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친환경다원
작살차
고품질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감능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入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入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지정번호: 제24호
상 명: 차 명제(茶名)
생년월일: 1951년 9월 25일
출 소: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번지
지정분야: 전통식품
지정 품목: 차(茶): 녹차, 청차, 백차, 홍차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